

최원섭의
##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⑱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 현실서 만나고 싶은 '의왕'
〈醫王〉

'의학(메디컬) 드라마'라고 장르를 구분할 정도로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다. 의학 드라마는 수술 장면과 같은 의료행위를 보여 주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의 갈등에 집중하기도 하며, 병원 시스템과 사회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중 한국에서 본격적인 의학 드라마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종합병원(1994)'이 아닐까 싶다. 꼬박 2년 동안 92부나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탄탄한 사전 취재를 바탕으로 병원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전문직 드라마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뒤로도 '하얀 거탑(2007)', '뉴하트(2007)', '골든타임(2012)', '굿닥터(2013)', '낭만닥터 김사부(2016)', '중증외상센터(2025)' 등 제목만 들어도 명장면들이 떠오르는 의학 드라마들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의학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많은 의학 드라마가 의사와 간호사, 또는 의사끼리의 로맨스로 진행되면서 이름만 의학 드라마이지 결국은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올 만큼 진중하게 의학 드라마 본연의 역할을 한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드라마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독특하다. 드라마는 율제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99학번 동기 다섯 명의 이야기이다. 간담췌외과 이익준(배우 조정석), 소아외과 안정원(배우 유연석), 흉부외과 김준완(배우 정경호), 산부인과 양석형(배우 김대명), 그리고 신경외과 채송화(배우 전미도).

진료과가 다섯이나 되는데도 이 드라마에서는 수술을 둘러싸고 다른 진료과와 갈등을 빚으며 표출되는 의사들 사이의 알력 다툼이나 병원 운영진과의 갈등, 마찰 등은 볼 수 없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20년 지기 동기 의사들의 일상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 드라마에도 의사들의 로맨스는 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요소가 의학 드라마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는 않는다. 이들의 의사로서 면모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진료과별로 자문 의사를 두었고, 심지어 수술 장면에는 현직 간호사를 직접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세세한 준비 덕분에 현직 의사들마저 이 드라마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드라마의 시선에서 본 병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 있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이 공존하고, 내 옆의 환자가 나와 같은 병을 가진 것만으로 큰 힘을 얻다가도 누군가의 불행이 내 것이 아님에 안도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제작진은 "작품의 배경이 병원이고 주인공의 직업이 의사일 뿐 '메디컬 드라마'로 불리기엔 거창한 것 같다"며 "메디컬이라 쓰고 라이프라 읽는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병원 "생로병사 모인 인생의 축소판"**
**부처님, 방편 · 지혜로 번뇌 제거해**
**공감 바탕한 자비로 상대 아픔 위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 아파하는 중생들을 치유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은 온갖 방편과 지혜로써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의왕(醫王)'이라고도 불린다.

훌륭한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의왕이신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무수한 방편을 흔히 '병에 알맞게 약을 준다[應病與藥]'고 표현한다.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머리가 낫는 약을,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허리가 낫는 약을 준다는 뜻이다. 또한, 똑같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머리를 부딪쳐서 아픈 경우도 있고 열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다. 열이 나서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타박상 치료제를 주거나 머리를 부딪친 사람에게 해열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바른 처방에는 바른 통찰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방편에 반드시 지혜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병에 알맞게 약을 준다'는 말은 준비된 100개의 약 중에서 고작 한 가지 약만으로 그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에 온 신경이 집중되기 마련이어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온몸이 아프다. 내 발에 찔린 가시가 암 환자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통증의 속성이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 크고 작은 고통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한 군데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을 얻는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통째로 해결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약은 중생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통찰하여 근본적으로 치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방편은 그냥 방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묘하고 오묘한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고 한다.

의왕이신 부처님의 본질은 '자비'이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고통에 버거워하는 중생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주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부(慈父)'라고도 한다. 자비의 기본은 공감이다.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며 동조와 위로를 전해 주는 것이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기획의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언제부턴가 따스함이 눈물겨워진 시대.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작지만 따뜻하고, 가볍지만 마음 한편을 묵직하게 채워 줄 감동이 아닌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결국은 사람 사는 그 이야기 말이다."

기획 의도대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동기 의사들은 정확한 처방과 뛰어난 의학지식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어루만져 준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는 안정원이나, 남편이 밉다고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이혼담을 전하는 이익준이 그렇다. 그러니 실제 의사들이 감탄할 만큼 의사들의 면모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현실적인 드라마이면서도, 현실의 병원에서는 만나기 힘든 의사들을 보여 주는 동화 같은 드라마이다. 마치 이 시대에 의왕 부처님이 출현하신 듯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5인방. 이런 의사들을 현실에서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 승단 화합 이끄는 규정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㉟ 열 가지 비법(十非法)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의지함이 없는 행(무의행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1·제2의 십종 무의행법과 출가공덕으로 인한 십종의 출가공덕, 5무간지옥과 4종 근 오간대죄 및 악업의 근본지죄, 4종의 근본 무간 죄의 분별과 3종 무의행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우리 인간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참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상의 종류를 분석하고 엄중하게 훈계하셨음에도 인간의 죄근은 그렇게 간단하게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닌지라, 함께 수행하는 집단에서도 그러한 파계의 비구를 가려내어 쫓아내는 '빈출법'을 거론하시며 열 가지 비법(非法)을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는 법에서도 정중하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라고 하며, 특히 파계 비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상좌 비구로서 삼장(三藏)을 지닌 사람은 스님네를 화합시키고 사자(使者)를 국왕과 대신에게 보내 알리며 그 위력의 도움을 받은 후에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하느니라."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악행 비구가 재보와 지식과 변재 내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국왕, 대신을 기쁘게 하여 계율을 파한 비법의 무리 편에 들어서, 악행 비구의 죄를 용서하여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들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만일 그 비구가 바른 법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스님네는 우선은 그대로 두지만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다면 화합하여 불법 밖으로 그를 물리쳐야 하느니라. 우파리야, 귀리가 보리밭에 나서 그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리와 섞여 있어 아직 귀리의 이삭이 나오지 않았을 때 농부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만, 그 이삭이 나왔을 때는 귀리가 보리를 못 쓰게 될까 두려워 뿌리째 뽑아 밖으로 던지는 것과 같다. 무의행을 파계한 비구도 그와 같아 청정한 스님네에 섞이고 선신(善神)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두지만, 선신이 이미 발견하여 무거운 죄상이 발견돼 대중 가운데 드러났을 때는 스님네는 화합하여 법에 의하여 그를 물리쳐 불법에서 쫓아내야 하느니라. 우파리야, 비유하면 저 큰 바다가 송장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의 성문승인 제자들도 똑같아 파계한 악행 비구의 송장과는 함께 살지 않느니라."

그때 다시 우파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파계한 악행 비구를 스님네가 화합해 몰아낸 후 그 악행 비구가 재보나 지식, 변재,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해 그들이 모두 파계한 비법의 무리 편에 들게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위세의 힘으로 스님네를 핍박하고 다시 그 악행 비구를 스님네와 함께 살게 한다면, 그때 스님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그때에는 그 스님네 가운데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비구는 그 계율을 호지(護持)하기 위해, 그 악행 비구에 대하여 성을 내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왕이나 대신에게 알려야겠지만, 혹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알릴 수 없게 되면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같이 정진하는 비구 중에 악행 비구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국왕 등의 힘과 합심하여 대중을 번뇌스럽게 할 때는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여, '묵빈대처(默賓對處)'로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니(僧尼)의 범계(犯戒) 등에 관한 쟁의를 재판하는 '칠멸쟁법'의 제정은 불교 교단에 있어서도 승단의 화합을 이끄는 적합한 규정으로 일곱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①현전비니=면전지쟁율(面前止諍律): 직접 범인에 대하여 죄상 등을 신문, 청취해 죄를 단죄.

②억념비니=억지쟁율(憶止諍律): 죄과를 쟁론 시, 범인의 기억 유무를 증명하게 해 단죄.

③불치비니=불치지쟁율(不痴止諍律): 정신 이상 시, 병의 쾌차 후 갈마를 주어 뉘우치게 함.

④자언(自言)비니=자발로지쟁율(自發露止諍律): 죄를 자백시키게 해 쟁론을 종식시킴.

⑤본언치비니=거지쟁율(居止諍律): 범인 진술이 모순될 때, 주(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함.

⑥다멱(多覓)비니=전전지쟁율(展轉止諍律): 쟁론 미결정 시, 유덕승(有德僧)의 수로 결정함.

⑦초부지비니=여기분소지쟁율(如棄糞掃止諍律): 양편 비구가 쟁론 시, 투쟁자의 서로가 참회함.

이 같은 내용은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에서 "제대덕(諸大德)이여, 이 칠멸쟁법은 반월반월계경(半月半月戒經) 중에 설했다"라고 하여 보름, 보름마다 설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아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